

제 13 회 2019 사인학술대회

學而時習

배우고 때때로 익히다

2019.2.17(일)
COEX 1F 그랜드볼룸
등록처 - 덴탈이마트 www.dentalemart.co.kr

Session 2 11:10-12:10



- ▶강연 제목 구치부 수복 어떻게 할 것인가
1.보존이나 보철이나
2.직접법이나 간접법이나
3. 직접 레진수복시 무엇이 중요한가
▶연자 신주섭 원장(전주미치과 / 제1회 수상)

기대평

김지홍 학술위원

구치부 수복 어떻게 할 것인가? 제목만으로도 설렌다. 치과의사라면 누구나 학창시절 각 수복 방법의 적응증과 금기증을 죽보처럼 외우던 시절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매일 일상 진료 중에 수복 판단의 기준이 애매한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된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위 주제는 정말 어려운 주제라 생각이 들며, 졸업 17년 차가 되었지만, 아직도 헤매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평소 수많은 임상 케이스를 통해서 많은 영감을 주는 신주섭 원장이 많은 준비를

했다. 구치부 수복시 보존수복과 보철수복을 결정짓는데 고려사항 그리고 보존 수복시 직접법과 간접법의 장단점 및 술식, 마지막으로 보철수복시 알아두면 좋은 핵심 사항 등에 대해 덴트포토 닥네임 '유경파파' 명성대로 신주섭 원장의 명쾌하고 열정적인 강의를 기대해 본다.

Session 2 13:50-14:50



- ▶강연 제목 개원가에 최적화된 효율적인 토탈 임상
1. 룰런을 위한 노하우
2. 효율적인 임상술식과 치과경영
3. 예후 좋은 환자중심 심미보철
▶연자 오충원 원장(예원부부치과 / 제6회 수상)

기대평

임필 학술위원

한참 바쁘게 진료하던 와중에, 전치부 파절로 인해 갑자기 내원한 환자를 당장 어찌하지 못하여 그냥 돌려보낸 경험이 있지는 않은가? 오래된 전치 보철물이 손상되거나 탈락된 환자들은 치과에만 가면 그 자리에서 문제가 즉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진료실에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환자를 만족시키기란 어렵다. 그런 환자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웃는 얼굴로 치과를 나갈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요즘같이 어려운 개원가의 현실 속에서도 높은 신뢰를 통해 안정적인 병원 운영을 할 수 있을텐데... 요즘 대

한민국 치과 개원의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녹록치 않다. 임상가로서 경영인으로서 두 가지 자세를 균형있게 갖추어야 룰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치과의사의 정체성은 의료인이기 때문에 임상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또한 자신의 임상을 펼칠 환자가 지속적으로 내원해주어야 개원의의 삶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적인 측면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두 가지 측면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것이야말로 대부분의 개원의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닐까 싶다. 오충원 원장의 강의를 통해 개원가에서 실행 가능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진료 노하우와 안정적인 병원 운영에 관한 해답을 조금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임상노하우 배운 만큼 돌려주겠다”

약처방 프로토콜 정리해 좋은 강의로 보답할 것

인터뷰 사인학술대회 수상자 황성연 원장(사람사랑치과)

황성연 원장(사람사랑치과)이 제7회 '사인 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사인 학술상(舊 사인-덴트포토 학술상)'은 덴트포토에서 1년 동안 우수한 학술활동을 펼친 회원을 대상으로 매년 말 치과의사 회원이 직접 온라인 투표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는 학술상이다.

매년 경쟁한 후보들이 추천되는 가운데 올해는 총 17명의 후보자가 선정되었으며, 약 1달간 덴트포토 회원들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사람사랑치과 황성연 원장이 선정되었다.

올 한해 가장 우수한 학술 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은 황성연 원장을 직접 만나 수상 소감과 2018년 한 해 활동,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미리 들어보았다.

간단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많은 치과의사가 직접 선정해준 상이라 기쁘다. 그동안 스스로 궁금했던 주제들을 정리하고 토론했던 노력을 좋게 봐주신 것 같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케이스와 임상경험들을 바탕으로 열심히 활동하겠다.

처음 덴트포토에 임상 공유 게시글을 올리 기시작한 계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졸업 이후 개원시기에 덴트포토를 통해 많은 지식과 경험을 습득할 수 있었다. 과거에는 치과의사들이 자신들의 노하우와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찾기 어려웠는데, 덴트포토라는 커뮤니티를 통해 여러 지식을 배울 수 있었다. 덴트포토에서는 교과서나 이론에서 배울 수 없는 각자만의 살아있는 경험들이 담겨있다. 다른 임상가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경험과 재미있는 노하우를 보고 배운 만큼, 나도 돌려줘야겠다는 마음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지금까지 덴트포토에 업로드 해 온 주제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초기에는 보험청구관련 주제로 열심히 활동했으며, 사랑니 발치와 관련된 글도 많이 올렸다. 특히, 사랑니 발치 과정에서 기록해 놓은 많은 임상 사진들과 글을 정리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노하우를 많이 얻은 것 같다. 다양한 사랑니 발치 케이스에 대한 도전은 물론, 발치 이후 이를 정리하고 복기하며, 더 성장할 수 있었



으며, 덕분에 이제는 거의 모든 사랑니를 뽑을 수 있는 실력에 이르렀다. 또한, 최근에는 근관치료 주제에 대해 공부하고 공유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본인만의 주제탐구 및 임상포럼 활동의 특징이 있다면?

자신만의 체계와 프로토콜을 정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 치과 진료 및 치료에서 중요한 주제이지만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아 정리가 덜 되어 있는 경우의 주제들이 있다. 이 부분들을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교통 정리해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 생각한다. 물론,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포함해 여러 활동들을 하다 보면 칭찬과 함께, 비평과 날 선 피드백을 얻기 마련이다. 그럴수록 '나를 드러내는 것은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를 시험하는 일이다'라는 마음으로 비평을 겸허

히 받아들이면서, 부족한 부분을 더 많이 배우고자 노력하고 있다.

'8인 8색 근관치료 이야기(출판: 덴탈위즈덤)' 등 다양한 출판활동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다양한 임상 케이스와 세미나 활동을 통해 얻은 내용들을 블로그에 정리했었다. 글 쓰고 내용을 정리하는 활동에 즐거움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하고 출판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어 이를 잘 다듬어 책을 내보았다. 특히, '8인 8색 근관치료 이야기'는 서로 다른 접근법과 노하우를 가진 각양각색의 임상가가 모여 최선의 진료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토론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더욱 특별했다.

2019 사인학술대회에서 사인 학술상 수상을 하게 되며, 내년 사인학술대회 연자로 초청된다.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은?

역대 사인 학술상 수상자가 다 모인 자리에서 수상을 하게 되어 더욱 기쁘다. 사인학술대회는 매년 개원의를 위한 노하우를 전하는 소중한 학술대회로 성장하고 있는 것 같다. 내년 사인학술대회 연자로 초청되어 매우 기쁘며, 현재 약물 사용과 관련된 내용의 주제를 준비하고 있다. 많은 임상가와 개원의가 약 처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실한 노하우와 방법을 가르쳐주는 강의는 많지 않았던 것 같다. 최근 약과 관련된 프로토콜을 정리하고 있다.